

## 15. 후원금 모금은 쉽지 않다 FUNd Raising Isn't FUN



메리는 이메일이 누구한테서,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하기가 두려웠다. 지난 몇 달 간에 걸쳐 가게 잔고가 적자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남편 존은 걱정하지 말라고만 한다. 남편한테 후원자들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다.

메리와 존이 소속된 선교단체는 그들 중에 한 명은 본국으로 돌아와야 할 정도로 후원 여력이 줄었다고 한다. 이 말은 지금 사역지에서 딸들이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딸들이 학기 중에 전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메리는 선교단체와 후원자들에게 화가 났고, 특히 존에게 화가 났다. 그는 후원자들에게 연락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메일도 하지 않았다. 메리는 후원을 부탁하는 것이나 특별히 그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돈을 후원자들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재정 문제는 결혼 생활에 중요한 문제다. 믿음으로 모인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경우, 이 문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 2001년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하고, 2008년 세계적인 침체가 있는 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문화간 사역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혼생활의 문제점도 심도 있게 살펴보자.

###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기독교 역사 초기에 다문화 선교사였던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편지에 재정 후원 문제를 많이 언급하였다(고전16장, 고후8-9장). 본 브로서는 후원금 모금 중에 발생하는 결혼 생활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지만, 먼저 바울이 성경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바울은 구체적으로 후원을 부탁하였고, 어떻게 후원금을 모금할지 까지 말하였다(고전16:1-2, 고후9:5).
-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후원할 것을 부탁했다(고후8:10-15, 9: 6-7).
- 바울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최상의 기준을 강조했다(고전16:3-4, 고후8:20-21).
- 심지어 바울은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교회끼리 비교하기도 했다(고후8:1-8; 9:2-4).

바울은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현시대 선교사들도 후원금 모금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선교사 부부 사이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 시작하기 전에

처음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하는 과정은 다양하나, 아래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많음.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약해 주어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때는 메일을 후원자들에게 보내면 며칠 안에 응답이 온다.
- 적음. 처음에는 후원이 '넘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후원하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선교사역이 지속될 정도로 모금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일단 선교사역이 성공할지를 지켜본다. 선교사들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한 자주 모임을 갖지만, 후원 계좌의 잔고는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잔고가 줄어들게 된다.
- 많음. 상당한 기간의 가뭄에도 후원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후원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역이 크게 성공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한다.

지속적인 후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후원이 적게 들어올 때에 배우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에 이런 말들을 한다. “이것이 내가 우려했던 일이야. 마감 시한까지 필요한 금액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배우자는 이 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만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소명 의식이 부족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긴장감이 조성된다.

## 사역중에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헌신을 하고 있을 때, 후원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후원을 그만둘 수 있다.

-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던 친구나 가족들은 아예 후원금을 보내지 않거나, 몇 달 후원하다가 후에 후원을 끊을 수 있다.
- 후원자가 실직하거나 은퇴하면서 그들의 후원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환율이 변해서 후원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후원자가 사망하는 경우로 후원금이 끊길 수 있다.
- 만일 선교단체가 선교사에게 제3문화자녀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면, 이것은 후원자가 원래 후원하는 목적과 달라서 후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유는 끝이 없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선교사 부부가 더 이상 선교지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선교사 부부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둘 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한 사람은 돌아가서 후원금을 모으고, 한 사람은 사역지에 계속 있을 것인가?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결정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본국 사역에 관한 일들

선교사들이 귀국 했을 때, 고국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 변화들을 아래에 적어보면,

- 자기를 후원하던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사역에 새로운 목회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자기 교회 교단의 선교사들만 후원할 수 있다. 또는 교회 멤버들의 선교 사역만을 지원하거나, 지금까지 복음이 닿지 않던 지역의 선교만을 지원할 수 있다.
- 친구들이 선교사역에서 떨어져나가 후원에 대한 서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선교 후원 위원회에서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가를 알고 싶어할 수 있지만, 사실 선교사는 현지에서 목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느라고 회심한 이들의 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 선교사가 고국에 머무는 기간을 선교로 여기지 않아서 후원을 끊을 수 있다.
- 다른 이들은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후원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 여겨 고국에 머무는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고, 어떤 이유로든 선교사들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후원이 끊길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도 후원자에게 사역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들이 낙심할 수 있다. 만일 고국이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라면, 그들에게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이들 부부 사이에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

## 은퇴가 가깝거나 은퇴 후에

은퇴가 가까울 때에 대개의 사람들은 소득이 최대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후원하는 이들도 은퇴를 하거나 사망할 것이므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선교사는 은퇴 후 연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여유가 있기보다는 소득이 계속 줄어든 것이다. 선교사에게는 다양한 은퇴 프로그램이 있다.

- 어떤 이들은 401(k), 403(b), 또는 다른 은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어서 굳이 따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 또 어떤 이들은 재산이나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과 이자로 살아가고 따로 후원금을 모금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로부터 나오는 연금이 보장되었을 지라도, 여전히 은퇴 후에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 '자비량선교'를 하러 간 이들이나, 사역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사회보장연금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인생 단계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들은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생 후원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모금한다면, 사람들은 왜 은퇴 후에도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후원을 하던 사람들도 후원을 중지하므로, 은퇴 후에는 후원금 모금이 더 어려워진다.

## 결론

결혼 관계에 있어서 후원금을 모금해야 하는 선교사들은 재정적인 압력에 시달린다. 이런 선교사들은 한계가 있는 소득으로, 재정적 구조가 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에 살고 있고, 또 자기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할 사람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불확실 아래에서 오랜 기간 사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선교사들은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들의 믿음이 작거나 죄를 지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9세기 중반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채우심'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책임이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 블로그, 스카이프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후원을 채우시는 분이다. 여기 몇 가지 숙고할 것이 있다.

- 결혼 생활에서 재정적인 문제는 불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기억해라. 후원금 모금은 불화의 원인이 되기 쉽다.
- 앞에서 말한 고린도 서신에서 선교 후원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문구들을 공부해라.
- 부부끼리 자주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간에 느낌들을 표현해라.
- 후원금 모금에 대한 책임을 부부 중 한 사람이 담당할 것을 결정해라.
- 좀 더 경험 많은 선교사 부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http://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http://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